

◎ 회장 및 대표이사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입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쌍용건설에 보내 주신 한결 같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쌍용건설은 올해에도 4조원 대의 수주 잔고와 600억원 대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는 건실한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저희 쌍용건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그 동안 대표이사였던 제가 회장으로 추대되고, 건축본부에서 영업을 총괄했던 김병호 전무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선임된 김병호 대표이사는 지난 82년 쌍용건설에 입사해 건축 영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영업통으로 도심 주상복합의 붐을 일으킨 '경희궁의 아침' 등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 경영정상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선임 대표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저는 그 동안 제가 일일이 챙겨야 했던 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내고, 이제부터는 더욱 경쟁력 있고 알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영업과 수주 등의 분야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우량 기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쌍용건설의 미래는 임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언제나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주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쌍용건설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쌍용건설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주식회사 회장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김병호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임에도,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 올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쌍용건설은 지난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석준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건축본부에서 영업을 총괄했던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의 성원은 물론,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김석준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며, 쌍용건설을 더욱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초우량 기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쌍용건설의 미래는 임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언제나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주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저희 쌍용건설을 아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저희 쌍용건설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호